

2016년 5월 12일

안대진

아침 일찍 문자가 왔다. 이승일 선생님이 인천학연구원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이었다. 시스템 작업내역과 관리자 매뉴얼 분량을 보니 어제 밤새 작업한 듯 하다. 오늘은 용인과 인천 출장이다. 서둘러 집을 나섰다. 5월 말 이사할 집 인테리어 공사할 동안 엇그제부터 임시로 금호동 집에 살고 있다. 바빠서 집 정리도 못 하고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입고 나갔다. 금호동에서 NPO지원센터 사무실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 오전 회의는 빠지고 서울기록원ISP 주간보고서만 썼다. 이승일 선생님이 곧 도착했다. 매뉴얼을 3부 프린트해서 용인으로 출발했다. 전해영 선생님은 내일 경기도메모리ISP 회의를 준비하기로 하고 돌만 갔다.

용인 수지에 1시가 다 되어 도착했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님은 지난 4월 이영남 교수님 소개로 만났다. 지난 주 논의할 것이 있다며 초대해 주셨다. 오늘은 휴관일인데 관장님과 세 분의 직원이 나와 맞아주셨다. 3층의 직원 휴게공간에서 다 같이 도시락을 먹었다. 수지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주문한 도시락이라고 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박영숙 관장님은 도서관의 활동과 고민들을 계속 이야기하셨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담배를 하나 피우고 3층 야외 테라스에 다 같이 앉아 이야기를 계속 했다. 나는 얼마 전 설립한 아카이브랩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장님은 도서관이 모으려고 하는 지역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도서관이 수지 지역에 자리잡은 지 십 몇년이 흘렀고 그 동안 도서관을 거점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생겼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 단체의 활동과 기록을 모을 계획이셨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니 3시가 훌쩍 넘었다. 인천에 4시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급하게 요구사항을 들었다. 3층에 모아놓은 기록물 박스들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했다. 이영남 교수님의 영향인지 ISAD(G) 등 표준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방식을 원하셨다. 나도 그런 방식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열성적인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컨설팅만 해 드리고 오픈소스 시스템 기반으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 나가는 방식을 제안해 드리기로 했다. 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서둘러 길을 나서는데 관장님이 쓰신 책 세 권을 가지고 나오셔서 감사히 받았다.

인천학연구원으로 향했다. 인천학연구원은 인천대학교에 소속된 지역 연구기관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 근무할 때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를 의뢰받았는데 드디어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다. 아카이브를 해 보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내부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헤메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까지 왔다. 내비를 찍어 보니 4시 20분 도착이다. 남승균 연구원에게 좀 늦는다고 전화했다. 인천 가는 길은 어디든 항상 막힌다. 송도캠퍼스로 옮기는 중이라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는 운동 공사중이었다. 길을 헤메는 바람에 5시가 다 되어 도착했다. 남승균 연구원과 일본에서 오신 연구자 한 분에게 오늘 완성된 아카이브시스템 사용법을 교육했다. 참석하지 못한 연구원들을 위해 이승일 선생님이 동영상 촬영을 했다. 두 분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7시 넘어 교육이 끝났다. 인천학연구원 아카이브는 고지도와 기록을 연결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었다. 인천항 개항 시기, 일제강점기 시기 등 주요한 4개 시점의 고지도를 입수해서 시스템에 넣었다. 매뉴얼을 드리긴 했지만 약간의 HTML 코딩도 해야 하는 콘텐츠 제작 방식이 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대견하기도 했다. 그 동안 몇 번 언성 높여 다투기도 했던 남승균 연구원이 오늘은 나긋나긋하게 대해줬고, 로비의 개항장 전시를 아카이브시스템에 하나하나 옮겨보아 겠다며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후련한 마음으로 인천학연구원을 나와 이승일 선생님과 담배를 하나 피우고 서울로 향했다. 어제 밤새워 일을 끝내준 이승일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명지대학교에 8시 30분에 도착했다. 학교 근처 식당에서 동태찌개를 시켰다. 오늘 둘 다 고생했으니 밥값을 출장비로 처리하기로 했다. 회사는 만들었는데 아직 우리 이름을 걸고 일하는 게 없다. 그냥 같이 일해서 돈을 모으고만 있다. 밥을 먹고 이승일 선생님은 집으로, 나는 학교로 갔다. 8시 20분부터 수업인데 9시 30분에 강의실에 들어갔다.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서 잠시라도 짬이 나면 수업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은 PHP언어로 MySql fetch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일부 남자학생들은 잘 따라가지만 대부분 어려워하고 있다. 10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10층에 가서 백종인 학생과 담배를 피웠다. 내일 수업 이야기를 잠깐 듣고 집으로 향했다. 금호동에 도착하니 11시 반이었다. 이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느라 지친 와이프 얼굴을 보니 너무 미안했다. 그런데 오늘도 너무 피곤해서 이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침대에 누웠다.